



03

LED 시대의 레트로 조명 연출

<인기가요> 조명 제작기록 [뉴진스 Supernatural]

전승훈 SBS A&T 미술제작본부 조명디자인팀 조명감독

Prologue

미디어아트의 발전으로 인해 LED 영상을 사용하는 무대가 많아졌다. 방송 제작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하나의 무대에서 다양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방송 제작의 발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LED 영상의 비중이 없던 시절, 호리존트와 블랙으로 표현되는 공간을 오로지 조명으로 디자인하던 시절은 과거가 되어버렸다. 고화질의 강력한 밝기를 내뿜는 영상, 무대를 장식하는 전식 등 다양한 광원들 속에서 조명은 그들과 다른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투쟁과 조화의 줄타기를 하는 존재가 되었다. 광원을 독차지하는 영광의 순간은 이제 없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조명장비도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방송사마다 조명 연출의 독창성은 많이 사라지는 느낌이다. 당대 각광 받는 조명장비를 유행에 따라 너도나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차별화를 위해 조명감독들은 새로운 조명장비를 찾게 되고 조명 연출에 대한 고민보다는 장비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차별성이 없는 조명 연출에 대한 고민은 2년간 SBS <인기가요> 조명감독을 하며 현재의 조명 추세를 따르는 것보다 ‘나만의 조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로 시작되었다.

유행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의 사회적 동조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새로운 것의 발견으로 인한 유행도 있지만, 기존의 것이 다시 각광 받아 재평가되어 유행하는 경우도 있다.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장비의 풍요 속에 지친 나로서는 유행에 반하는 예전 장비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LED 장비 시대에 다시 한번 할로겐 장비 특유의 Mood를 맛보고 싶었다. 그러던 중 2024년 여름, 90년대와 2000년 초반 세기말 감성으로 무장한 뉴진스의 Supernatural 무대는 조명 연출의 유행과 차별성에 대해 고민하던 나에게 남들과 다름을 보여줄 기회로 찾아왔다. 기획사의 의도와 공개된 뮤직비디오, 무대의상과 안무 컨셉을 보면 이번 뉴진스의 무대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야만 했고 기존의 트렌디한 조명 연출이 아닌 차별화된 기법이 필요했다.

Pre-production (사전제작)

수많은 신곡이 매주 <인기가요>에서 쏟아지는데 유행하는 음악 스타일은 매우 비슷하다. 가수들의 컨셉과 음악에도 당대의 유행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뉴진스의 음악을 듣다 보면 요즘 곡인 것 같으면서도 90년대 시절 듣던 멜로디가 떠 오른다. 매주 수많은 가수의 음원을 듣다 보면 비슷한 노래, 비슷한 이미지와 컨셉으로 인해 혼란이 있었는데 레트로 Mood로 무장한 뉴진스의 행보는 오히려 새롭게 다가온다.



그림 1. 뉴진스 무대 가상 이미지

조연은 최신 조명장비, 주연은 전통 조명장비

인기가요 Pre-Production 회의에서 이러한 레트로 느낌을 최대한 살린 무대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뉴진스의 컨셉이기도 했지만 제작진이 바라보는 관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명에 대한 계획은 회의 전부터 확실하게 잡혀 있었다. Moving Head Light 장비를 최대한 배제하고 할로겐 Lamp 기반의 등기구와 컬러필터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뉴진스 공연 당시 <인기가요> 사전세트가 추가로 4개나 더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생방송 당일 자정부터 녹화를 해도 시간상으로 제작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필자는 이런 상황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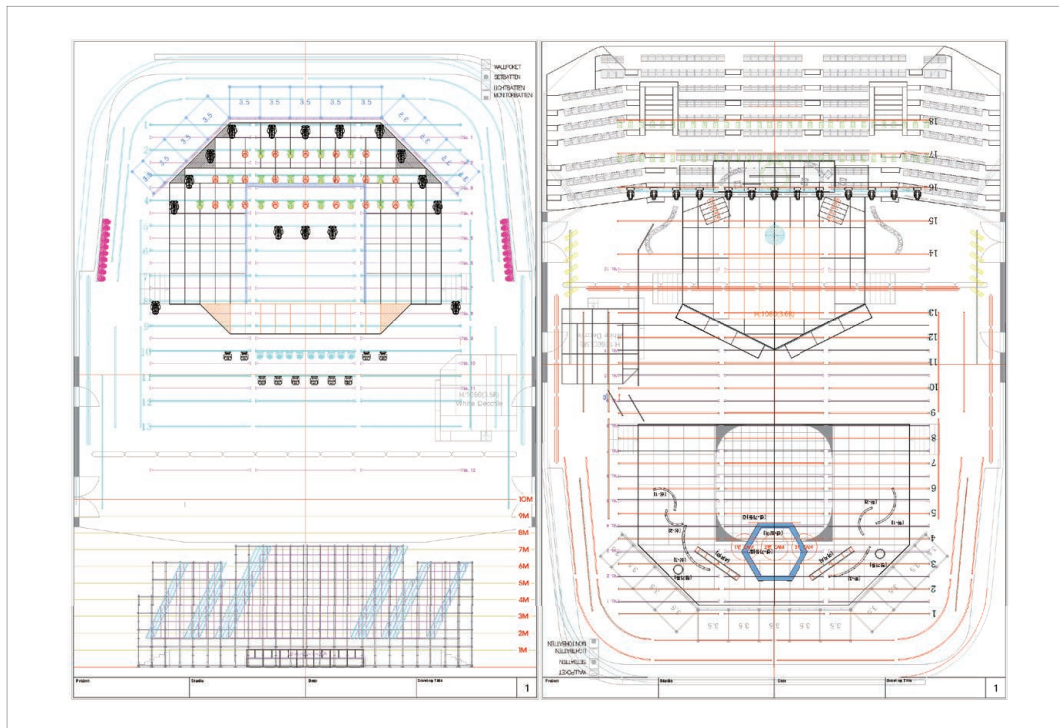


그림 2. 메인 무대 도면(좌)과 뉴진스 무대 도면(우)

스튜디오 인테리어, 레트로 연출의 훌륭한 도구

뉴진스를 1번 세트와 2번 세트를 메인 무대(LED 영상이 설치된)쪽에 설치한 후 반대쪽 객석 쪽에 뉴진스의 무대를 세팅하여 시간을 아끼자는 의견을 냈다. 제작 시간의 절감을 위한 아이디어였지만 실제 의도는 ‘제대로 과거의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미디어아트와 혼적이 미장센 요소에 전혀 들어가면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 90년대 음악프로그램 느낌을 살려 조명과 세트의 질감으로만 미장센을 가득 채우고 싶었다. 또한 SBS 등촌동 공개홀은 오래된 역사만큼 객석 쪽 인테리어를 꾸미지 않더라도 90년대 말 분위기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SBS 등촌동 공개홀은 1990년 초 준공 이래 외관을 포함한 내부 인테리어 대부분이 그 당시의 것을 잘 유지관리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명감독으로서 이러한 내부환경 및 배경은 레트로의 느낌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훌륭한 오브제라 판단하였고 이를 조명디자인과 함께 프레임 안에 마음껏 담아내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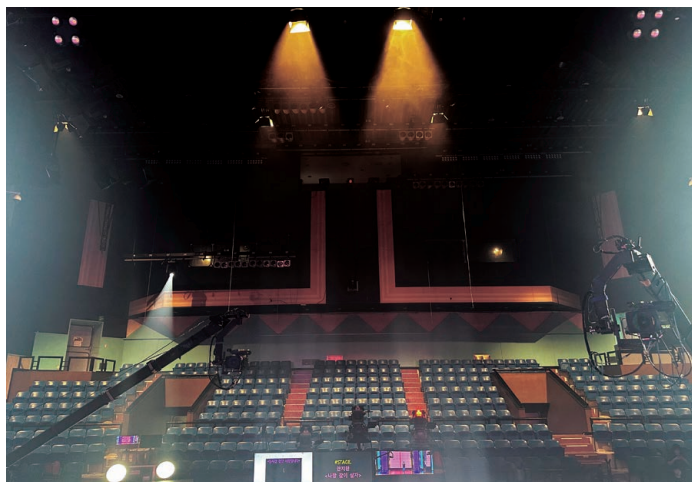


그림 3. SBS 등촌동 공개홀 객석 사진

조명 효과로 영상 질감의 감성 차별화

대표 광원을 할로겐 장비로써 Fog를 가득 채워 영상 질감 또한 UHD의 선명함이 아닌 물 빠진 색감, 선명하지 않은 흐릿한 그 시절 필름의 질감을 카메라의 효과 및 후반작업 없이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단순히 강한 Beam과 Spot 조명장비로 조명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진정한 조명의 Mood로 조명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 밖의 미장센으로 드러난 작업구조물(레이저 Layer가 아닌 과거에 쓰던 비계), 트러스, LED 영상 대신 브라운관 TV 소품을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다. 여기에 과거 많이 쓰던 회전식 로고 세트, 지미집에 달린 뉴진스 스티커 등 레트로 미장센들이 회의를 통해 하나씩 더해졌다.



그림 4. 회전 로고 세트(안가요 방송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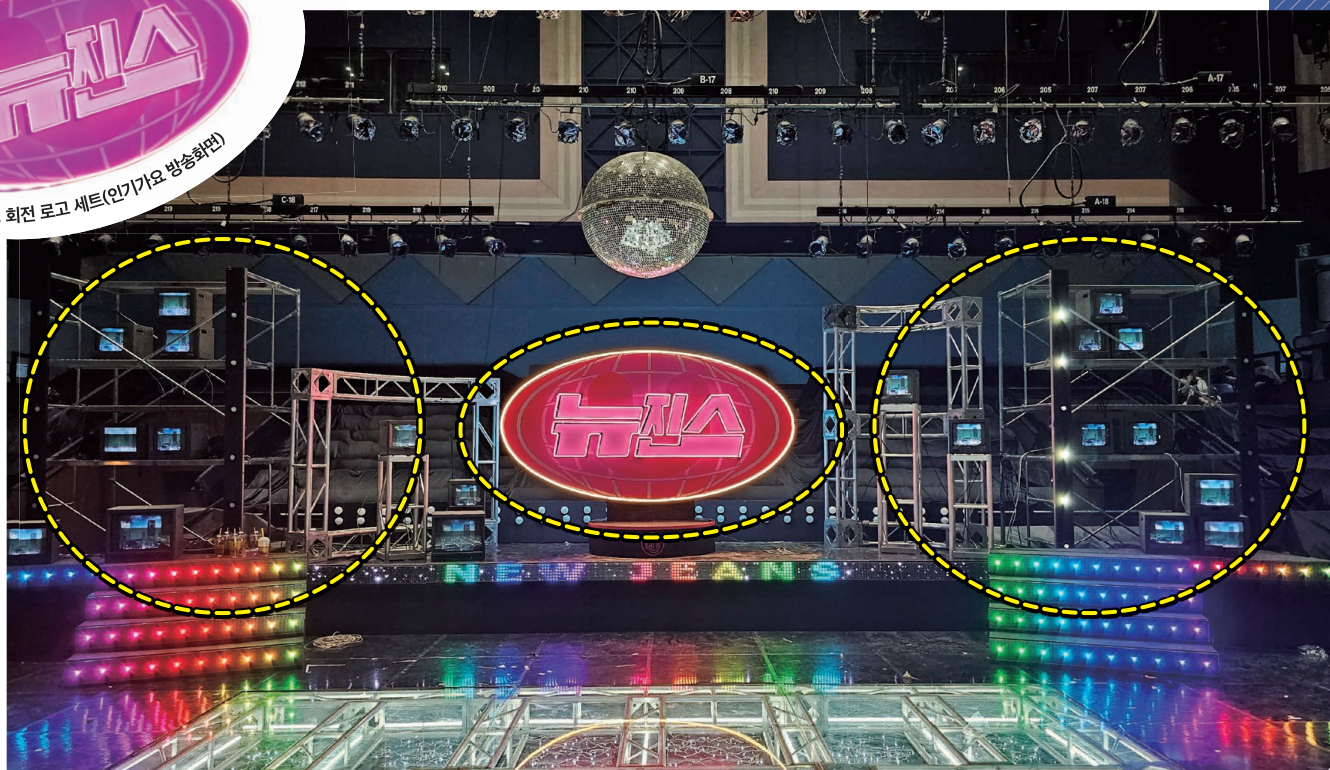


그림 5. 작업구조물, 트러스, 브라운관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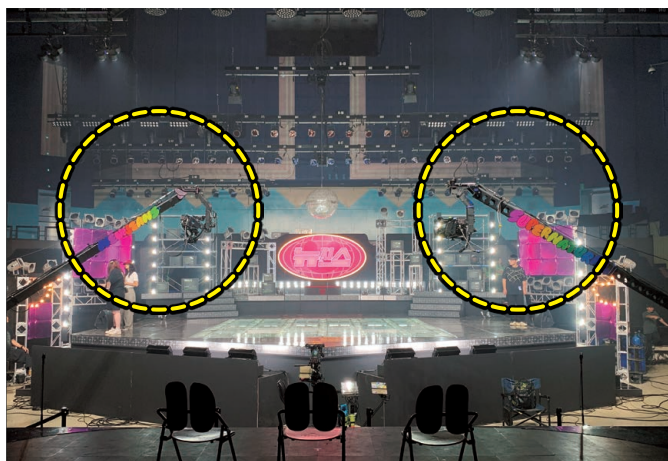


그림 6. 지미집 뉴진스 스티커



Production

할로겐 광원의 감성을 살리는 색상 선택

조명 도면을 디자인하면서 이미 확고한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어떤 장비와 필터를 사용할지만 결정하면 되었다. Beam과 같은 효과를 주려면 소파를 사용했겠지만 대파로 선택했다. 조명의 빛줄기가 보이는 것보다는 무대 전체의 Mood를 살리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퍼지는 느낌을 원했기 때문이다. Fog를 덜 때도 뿌영계 렌즈에 습기가 찬 것처럼 조명이 무대를 포용하길 원했다. 대표 컬러로는 할로겐 장비가 3,200K 텡스텐이기 때문에 Amber는 필수였고 전환의 느낌으로 Blue, 그리고 Magenta를 추가하였다.



그림 7. Amber Color(인기가요 방송화면)



그림 8. CTB(Color Temperature Blue) Color(인기가요 방송화면)



그림 9. Magenta Color - 할로겐 장비를 보완하는 LED 장비(인기가요 방송화면)

Magenta의 경우 필터를 따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무대 방향의 Batten을 두 줄 밖에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Amber와 Blue를 사용할 경우 Magenta 필터를 쓸 만한 설치 장소가 없었다. 하지만 Amber와 Blue를 같이 사용한다면 자연스럽게 무대로 떨어지는 조명은 Magenta로 섞여서 표현되기 때문에 Magenta를 선택하였다. 인물 White 조명 색온도를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할로겐을 사용했을 경우 색온도 차이로 자연스럽게 Amber-CTO(Color Temperature Orange) 느낌이 살았지만, 더 진한 색감을 원했기 때문에 동경필터 #33을 사용하여 짙은 Amber로 표현하였다. Blue의 경우 처음에는 동경필터 #77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너무 파랗게 표현되고 광량이 많이 손실되어 고민이 되었다. 그래서 동경필터 #78으로 변경하였다. Dim을 많이 올려 사용했더니 촌스러운 Blue가 아닌 새벽녘의 차가운 CTB(Color Temperature Blue)가 표현되었다.

Blue를 차가운 느낌의 CTB로 대체하여 쓰게 된 계기는 디자인하면서 필자의 책상에 있던 KODAK 필름과 FUJI 필름의 필름 깡통을 보면서 떠오른 아이디어였다. 개인적인 유희로 두 라이벌 필름 회사의 컬러감을 무대에 각각 표현하고 싶었다. 필자가 느꼈던 두 회사의 대표 컬러는 CTO와 CTB였다. 요즘 장비로는 컬러를 실시간으로 다양하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지만 할로겐 장비에 색변환필터를 사용할 경우 공연이 시작되면 바꿀 수가 없기에 신중하게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



그림 10. KODAK과 FUJ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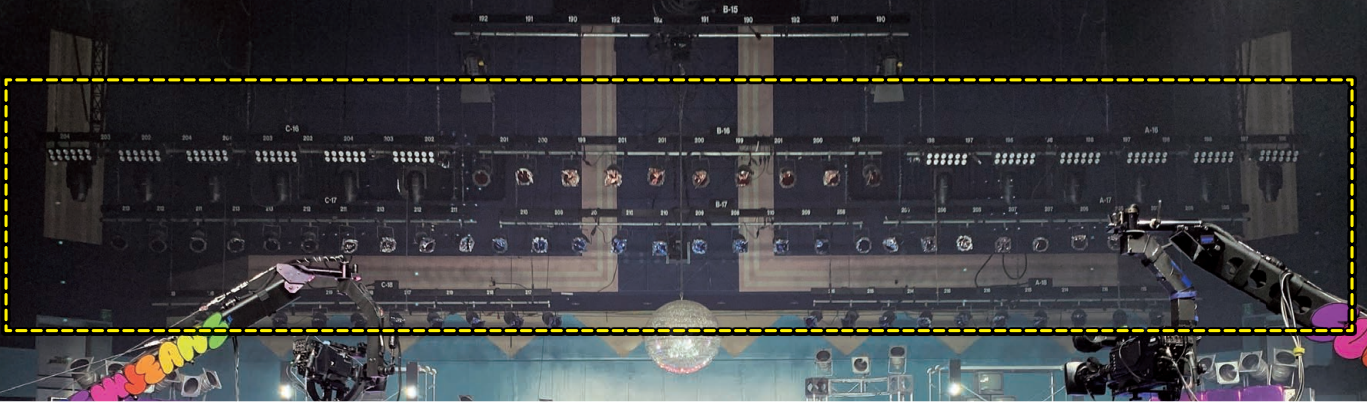


그림 11. 필터를 사용한 할로겐 장비와 LED 장비

무대에 설치된 작업선반에는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대파를 그대로 설치하였다. 필터를 사용하면 빛이 투과하므로 강한 느낌은 없고 뭔가 답답함이 있었다. 강한 임팩트가 필요했다. 필터 없이 설치된 대파들은 무대 전체를 장악하는 비장의 무기였다. 또한 필터 없이 색온도가 2,900~3,000K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필터를 설치한 Batten 대파 속에서 CTO가 한층 돋보이는 효과를 주었다. 무대의 미장센으로도 표현하였기 때문에 은색 몸체를 사용하였다. 무대 옆은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서 단순 대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먼지가 쌓여 있던 4구 뱅크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파와 같은 할로겐 계열이면서도 4개의 램프가 한 몸체로 색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이 장비 또한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다. 필터 없는 할로겐 본연의 색감이 뉴진스 무대의 핵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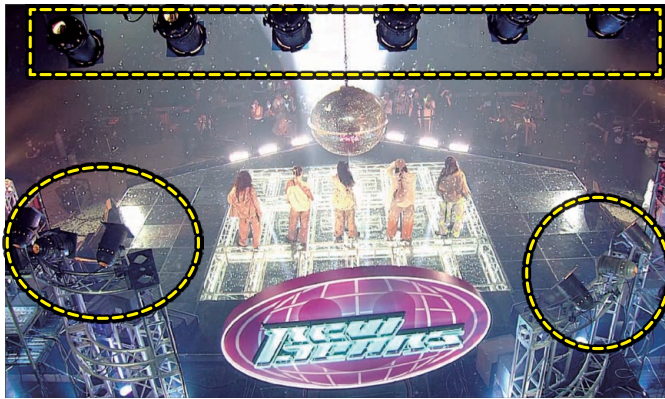


그림 12. 할로겐 대파 라이트(인기가요 방송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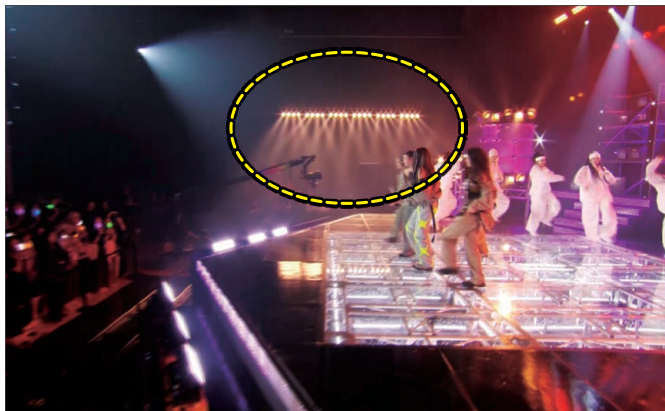


그림 13. 무대 측면에 디자인한 4구 뱅크(인기가요 방송화면)



신구 조명의 조화로 만들어 낸 완벽한 색 보완

과거의 무대를 재현한다고 해서 할로겐 장비만 사용한 건 아니다. 오래된 장비에 대한 보완의 효과로 LED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컬러의 색감을 더 진하게 보충하였다. 특히 Magenta의 경우 Amber+Blue 조합이 결정적으로 Amber+CTO+CTB로 바뀌면서 효과가 덜하여 Magenta 컬러를 LED 장비로 보완해주었다. 과거 무대에서 수동으로 직접 서치 효과를 줬던 장비로 Moving LED Spot을 사용하였다. 대신 요즘처럼 다양하고 정교한 움직임이 아닌 Moving Effect를 단순하게 주어 움직임에도 과거의 느낌을 녹이려 하였다.

인물 White의 경우 가장 최신 조명장비를 사용하였다. 과거의 무대를 만드는 작업이지만 인물 조명만큼은 과거의 장비를 사용할 수 없었다. LED 광원은 상대적으로 다른 광원에 비해 휘도가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조명장비는 LED 칩셋 및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으로 High CRI 및 TLCI 광원을 가진 조명등기구들이 대거 출시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이다.

전식의 활용

추가로 무대 바닥에 6,000K T5 전식을 설치하였다. 요즘 같아서는 무대 바닥에 영상이 설치되었겠지만 90년대 무대에는 트러스에 조명을 설치하여 색을 입히고 강화유리(혹은 아크릴)로 덮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번 뉴진스 무대도 이러한 점을 오마주하였는데 필자는 조명을 설치하는 대신 전식을 요청하였다. 색온도 설정을 높게 설정하였는데 할로겐 장비들로 인하여 가수의 얼굴이 너무 텅스텐 느낌으로 나올 것 같았다. 그래서 색온도를 중화하기 위해 6,000K T5를 사용하자고 하였다. 자연스럽게 스트립 조명으로 사용되면서 무대 바닥은 과거의 아크릴 무대 같은 효과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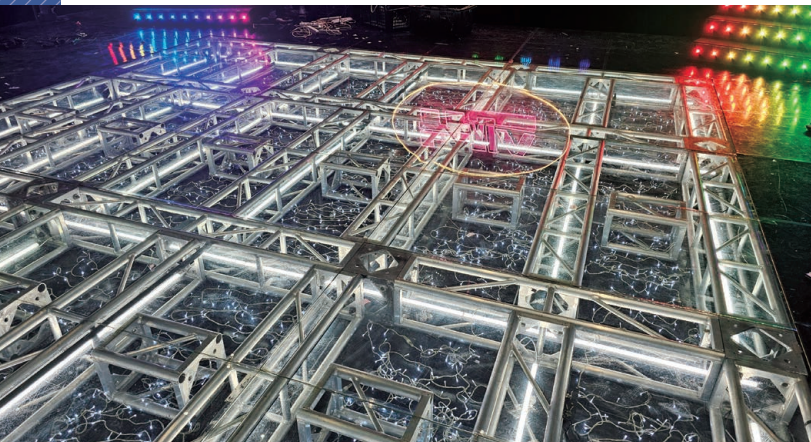


그림 14. T5 전식(6,000K)



그림 15. T5 전식 효과

인물 조명 설정

Key가 되는 조명은 무대를 뒤집었기 때문에 핀 룸이 반대쪽에 있어 핀을 사용할 수 없었다. 1,200W LED Spot을 사용하여 색온도와 밝기를 필자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색온도는 공연장의 환경도 영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명감독이 사용하는 컬러를 가장 잘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단순히 데이라이트 텅스텐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정적으로 색온도를 5,900K까지 올려서 사용하였다. 이유는 바닥 T5가 6,000K였고 할로겐 장비들은 3,000K도였기 때문이다. T5는 깨끗한 White로 표현되었고 할로겐 장비들은 필자가 원하는 Gold 빛의 CTO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필터를 씌운 할로겐 장비들의 채도가 필자가 원하는 느낌으로 표현되었다.

전체적인 광량은 Key+Fill 포함 1500 LUX의 조도 값으로 설정하였다. 무대의 컨디션과 SBS 등촌동 카메라(Ikegami UHD CAMERA)의 컨디션과 관용도를 고려한 설정이었다. 과거의 장비로만 조명을 디자인하고자 했던 목표는 100퍼센트 달성하지 못했다. 할로겐 장비의 컬러 보완과 인물 조명에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LED 장비에 길들어 있었고 방송 제작 환경에서 시간은 조명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러볼

무대를 구성하는 요소로써 아이디어를 추가로 낸 부분은 미러볼이다. 객석을 배경으로 무대를 설치하였는데 연출팀에서 객석이 잘 안 보였으면 하였다. 객석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야만 했다. 그 존재감은 조명용 미러볼이 적격이었다. 레트로하면서도 미러볼에 집중되는 조명을 보면서 무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 같았다. 할로겐 장비로는 효과를 줄 만한 것이 없어 미러볼에 20대의 Beam을 모아 Strobe 효과를 표현하였더니 성공적이었다.



그림 16. 미러볼 Strobe 효과

Epilogue

현재 Show 조명의 추세는 LED가 대세이다. 이런 환경에서 할로겐 장비를 이렇게 많이 써 본적은 오랜만인 것 같다. 할로겐램프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스태프와 아티스트가 땀을 많이 흘렸을 것으로 생각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모두가 즐거워하고 의미 있었던 작업이었다. 시작은 과거 무대의 감성 표현이었지만 그동안 최신 트렌드 장비를 사용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준비해야만 했던 시간이었다. 먼지가 쌓인 할로겐 장비를 다시 재정비했고, 필터를 하나하나 잘라서 붙여야 했으며 Moving Head Light와 다르게 포지션 또한 조명 조정봉으로 섬세하게 맞추는 작업이 필요했다.

과거의 장비를 충분히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변화와 기술의 상징인 LED 장비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차별화된 그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자부한다. 2년여 간의 <인기가요> 조명감독으로서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질 즈음 할로겐램프처럼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작업이었다. 🎬